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희¹ · 문승태² · 강희순³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¹, 순천대학교 사범대학², 순천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³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im, Young Hee¹ · Moon, Seung Tae² · Kang, Hee Sun³

¹Center for Gender Equality, Sogang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³Sexual Harassment-Violence Counseling Cente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in dating college students.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468 college students who have had dating experiences were recruited and answe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with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result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assertiveness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Significant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were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assertiveness. These variables explained 37% of the variance in sexual assertiveness.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d improve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sexual assertiveness. There is a need for sex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hat are relevant and effective.

Key Words: College student, Sex, Assertiven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성(性)에 대한 허용과 개방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성교제의 증가, 성 가치관의 변화 등 개인의 성적 표현이나 성행동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성교육이나 성보호 제도는 미비하고 개인의 안전한 성행동 실천도 매우 낮아 성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허용적인 대학 분위기와 개방적인 성문화를 접함으로써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성행동으로 여러 건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Yoo, Park, &

You, 2012). 대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41.6%가 성교경험이 있으며(Kim, Yoo, & Song, 2013), 성교경험 대학생의 17.6%가 원하지 않은 임신경험과 21.9%가 인공유산 경험이 있다는 보고(Sohn & Chun, 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행동에 있어서 상호 간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데이트 파트너의 요구를 응낙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실망감,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같이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허

주요어: 대학생, 성, 자기주장

Corresponding author: Kang, Hee Sun

Sexual Harassment-Violence Counseling Cente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ro, Suncheon 540-742, Korea.
Tel: +82-61-750-3163, Fax: +82-61-750-3169, E-mail: ganghs7205@hanmail.net

투고일: 2013년 7월 8일 / **수정일:** 2013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9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용은 이후 데이트 성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Impett & Peplau, 2003).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녀 대학생의 20.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데이트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성교로 인해 성 매개성질환,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신체적 문제 외에도 불쾌감, 모욕감,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위축, 이성애에 대한 불신, 대인기피 등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2). 따라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자율적 건강행위의 개입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 상황에서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적 자기주장이 요구된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상황에서 자기감정의 균형, 자신간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즉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맥상통한다(Lee & Lee, 2006).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적인 조건에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Kim, Kang, & Jeong, 2012).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는 성행동 혹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등의 성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도 한다(Lee & Lee).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성적 자기주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Oh, Kang, & Kim, 2010)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한 여성의 경우 그녀가 속한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 의한 성별화된 각본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Impett & Peplau, 2003). 여성이 자기보호를 위해 성병예방이나 피임을 주장할 때도 여성에게는 성적 능동성이 요구되는데, 이때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동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의 자기보호를 위한 성적 능동성이 자기 안에 대치되어 내적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Kiefer & Sanchez, 2007).

또한, 대학생의 데이트성폭력 피해와 가해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위주의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 Lee,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양성 평등적 태도에 관한 대학생 연구에서는 성평등 의식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Yang & Lee, 2008).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은 성적 자기주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반면, 양성평등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전통적 성태도를 지닐수록 실제 성행동에서도 수동적인 역할을 할 경향이 높으며, 수동적인 성행동은 성적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성적 만족도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남성에게는 전통적 성태도가 주도성을 요구하여, 전통적 성태도가 성적 자율성을 높여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Kiefer & Sanchez, 2007). 이처럼 전통적 성태도가 남녀에 따라 성적 자율성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의 성별에 기반을 둔 성역할 고정관념 변인과 성적 활동에 국한된 전통적 성태도 변인 각각에 대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성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성적 자기주장은 일반적인 자기주장과도 연관성이 높은데,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착한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회적 기대로 상대방의 기본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사회화되었고, 여성의 자기표현을 금지하는 사회화된 언어 또는 메시지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자기주장이 서툴다(Jang, Cha, & Lee, 1992). 이러한 사회화과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잘하는 여성은 성적인 상황에서도 주도, 거절, 예방적인 성적 자기주장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Song (2006)은 여대생의 성과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에서 성경험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이 성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높아, 성장과정에서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 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Lee (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후반 여학생들의 경우 성 접촉이 진행될수록 자기주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적인 상황에서 자율성을 행사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로서 성적 자기주장이 일상적인 자기주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높은 여성은 안전하지 않은 삽입성교, 항문성교와 위험한 파트너와의 성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rlow, Quina, Morokoff, Rose, & Grimley, 1993). 여대생의 불안이나 적대감과 같은 정신건강 요인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련성 연구(Yoo & Park, 2004)에서 여대생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나,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성적자기주장과 불안 및 적대감의 상관정도가 미약하였고, 성적자기주장에 성 관련 경험특성과 의사소통유형이 주요 변수임을 밝혀냈다. 또한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감소된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소된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Sohn, 2010).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훈련 및 효과적인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을 파악한다.
-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적 자기주장

타인의 성 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하며(Morokoff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Lee와 Lee (2006)가 Morokoff 등이 개발한 영문형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한국형 자기주장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역할 태도로 남녀역할에 대해 자기 다른 기준과 기대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O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Kalin과 Tilby (1978)가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Kim, Choi와 Sohn (2001)이 우리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전통적 성태도

남녀의 다양한 성적 활동이라는 구체화된 성역할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남성 주도와 여성 수동의 성역할을 의미하며(Kiefer & Sanchez, 2007), 본 연구에서는 Kiefer와 Sanchez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자기주장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견해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Galassi, 1977), 본 연구에서는 Rathus (1973)가 개발한 도구를 Song (2006)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상관성 조사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남녀공학 3개교 및 여대 2개교에 재학 중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원 3명에 의해 2010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양수업 담당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작 10분 동안 설문 조사하였다.

G*Power 3.1.3 프로그램(Erdfelder, Faul, & Buchner, 1996)으로 다중회귀모형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효과크기 .02, 5% 유의수준과 80%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대상자는 395명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654부 설문지 중 이성교제 경험이 없거나 불충분하게 응답한 186부를 제외한 4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Morokoff 등(1997)이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Lee와 Lee (2006)가 한국형 성적 자기주장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ee와 Lee (2006)가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는 주장, 거절, 임신-성병 예방의 3개요인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주장 요인은 파트너와 성 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 성적인 접촉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절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 접촉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임신-성병 예방 요인은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게 되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가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5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요인 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요인 3 이하인 1개 항목을 제외한 3개요인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Lee와 Lee (2006)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소속 대학의 성상담 전문가 4명에게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단계를 거친 후 남녀 대학생에게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행동의 시도,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으로 구성된 총 14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Lee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Kalin과 Tilby (1978)가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Kim 등(2001)이 우리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고정관념, 경력개발, 대우평등, 성적평등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전통적 성태도

성적인 활동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efer와 Sanchez (2007)의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 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원과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3명에게 문항 표현의 검토를 요청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척도를 동시 통번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에게 한글척도를 영문으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높였다. 5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요인 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1차적으로 요인 추출 값을 살펴보았다. 요인 추출 값이 .40 이하가 없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5문항 전체가 같은 단일 분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총 설명변량 값은 67.84%였다. 성적인 활동은 남성의 당위적 능동성, 남성의 당위적 지배성, 여성의 당위적 수동성, 남성의 선호적 주도성, 여성의 선호적 수동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접촉 시 남녀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성인식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8이었다.

4) 자기주장

자기주장 척도는 Rathus (1973)가 개발하고 Song (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주장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안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3명의 전문가에게 번안 척도의 타당도를 '상중하'로 평정하고 문항 표현의 검토도 요청하였다. 자기주장 척도는 역문항 17개를 포함하여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것, 사회적 불안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상대

방에게 합리적으로 요청하거나 비합리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등 사회적 상황을 표현해주는 각 문항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 응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주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Song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요인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년, 전공, 거주형태, 종교, 성교경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1 ± 2.3 세이었으며, 성별은 여성 243명(51.9%), 남성 225명(48.1%)이었다. 학년은 1학년 124명(26.5%), 2학년 123명(26.2%), 3학년 98명(21.0%), 4학년 123명(26.3%)이었으며, 전공은 인문사회 105명(22.4%), 공과계열 138명(29.5%), 보건계열 117명(25.0%), 예체능계열 108명(23.1%)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 243명(52.0%), 혼자 거주 225명(48.0%)이었다. 종교는 있음 243명(52.0%), 없음 225명(48.0%)이었으며, 성교경험에서는 있음 185명(39.5%), 없음 283명(60.5%)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연구대상자의 전통적 성태도 정도는 평균 14.12 ± 3.92 점(범위 5~25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는 평균 38.59 ± 6.90 점(범위 19~60점)이었다. 자기주장 정도는 평균

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ual assertiveness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25 (48.1)	51.76±7.20	-6.38	.001
	Female	243 (51.9)	55.41±6.92		
Grade	Freshman	124 (26.5)	54.93±6.98	1.50	.212
	Sophomore	123 (26.2)	55.05±6.80		
	Junior	98 (21.0)	53.59±7.30		
	Senior	123 (26.3)	54.36±7.56		
Major	Humanities & social ^a	105 (22.4)	56.21±7.05	30.78	.001 (c, a > d, b)
	Science & technology ^b	138 (29.5)	51.04±6.83		
	Health & medical ^c	117 (25.0)	56.59±6.65		
	Arts & physical education ^d	108 (23.1)	52.94±6.52		
Religion	Yes	243 (52.0)	56.03±6.84	6.29	.001
	No	225 (48.0)	53.06±7.14		
Residence	Family residence	293 (62.6)	54.80±7.01	1.26	.210
	Alone	175 (37.4)	54.12±7.32		
Intercourse experience	Yes	185 (39.5)	53.87±7.81	-2.01	< .05
	No	283 (60.5)	54.93±6.82		

95.43±14.01점(범위 55~140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기 주장 정도는 평균 54.62±7.14점(범위 28~7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468)

Variable	M±SD	Range
Gender role stereotypes	38.59±6.90	19~60
Traditional sexual attitude	14.12±3.92	5~25
Self-assertiveness	95.43±14.01	55~140
Sexual assertiveness	54.62±7.14	28~74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성별, 전공, 종교 유무, 성교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t=-6.38, p<.001$)에서는 여자(55.41점)가 남자(51.76점)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F=30.78, p<.001$)에서는 보건계열(56.59점), 인문계열(56.21점), 예체능계열(52.94점), 공과계열(51.0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인문계열이 예체능 및 공과계열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유무($t=6.29, p<.001$)에서는 있음(56.03점)이 없음(53.06점)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성교경험여부($t=-2.01, p<.05$)에서는 경험이 있는 학생(53.87점)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54.98점)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여학생, 보건 및 인문계열, 종교가 있거나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4.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태도($r=.39, p<.001$)간,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주장 간($r=.45,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졌으며,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자기주장($r=-.37, p<.001$), 전통적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r=-.27, p<.001$),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기주장($r=-.18, p<.001$), 전통적 성태도와 자기주장($r=-.19, p<.001$)간에는 통계적으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으며,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에 있어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고 전통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자기주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종교, 거주형태, 삽입성교경험유무)을 통제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18에서 .45로 .80 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상관(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81로

Table 3. Relationships among Sexual Assertiveness and Other Study Variables

(N=468)

Variables	Gender role stereotypes	Traditional sexual attitude	Self assertiveness	Sexual assertiveness
	r (p)	r (p)	r (p)	r (p)
Gender role stereotypes	-			
Traditional sexual attitude	.39 (< .001)	-		
Self-assertiveness	-.18 (< .001)	-.19 (< .001)	-	
Sexual assertiveness	-.37 (< .001)	-.27 (< .001)	.45 (< .001)	-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83~.95, 분산팽창인자가 1.04~1.2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beta=.14, p<.001$), 인문계열($\beta=.31, p<.001$), 공과계열($\beta=-.45, p<.001$), 보건계열($\beta=.19, p<.001$), 성역할 고정관념($\beta=-.17, p<.001$), 전통적 성태도($\beta=-.08, p<.05$), 자기주장($\beta=.34, p<.001$)이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Table 4.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N=468)

Variable	β	t (p)
Gender (1=women)	.14	3.34 (<.001)
Major: Humanities & social	.31	6.48 (<.001)
Major: Science & technology	-.45	-8.16 (<.001)
Major: Health & medical	.19	4.25 (<.001)
Gender role stereotypes	-.17	-3.89 (<.001)
Traditional sexual attitude	-.08	-2.05 (<.05)
Self-assertiveness	.34	8.75 (<.001)
Adj. R ² =.37, F=39.73,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조사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여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성별, 전공,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 보건 및 인문계열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를 대상으로 그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어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개념으로서 성적 자율성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보다 성적 자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Chang & Lee, 2003; Kim et al., 2012),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남학생의 성 개념이 행위 중심적이며 성기 중심적인 점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행동의 결과가 원하지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스스로가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하고자 실천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일상생활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성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지식의 강화만을 목표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자기주장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시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여학생들의 성의식 향상과 성경험에 있어서 성별 빈도 차이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여성용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남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속 연구로서 성적 자기주장 문항에 대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요인분석이 포함된 남녀공용 성적 자기주장 도구 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계열별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전공 특성상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지식이 높고, 임신·성병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타 계열 학생들보다 성적자기주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성적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Han (2010)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연구에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고, 종교성은 성태도에 있어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인 순결성 등을 강조하는 종교적 가치규범에 의한 태도 차이로 사료된다.

성교경험 여부에 따라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이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적 접촉이 심화됨에 따라 성적 자기주장능력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Lee, 2001)와 Choi (2005)의 연구에서 성교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교경험이 있는 경우가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았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태도는 성적 자기주장에 부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두 요인은 성적 자기주장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남녀 대학생이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다는 Kim 등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주장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주장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여대생의 자기주장능력이 이성교제 간 성적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Song (2006)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주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성역할 고정관념과 전통적인 성태도는 낮추고, 자기주장을 높이는 방안이 도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성적 자기주장의 요인에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에 의해 예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주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은 대인관계의 출발점이자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Choi (2005)의 연구에서도 성교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일치형 의사소통이 성적 자기주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자기주장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는 평소 개인의 권리존중과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일치되는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 그리고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솔직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성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기대, 생각, 견해, 감정과 일치되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통적으로 성별화된 사회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여대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성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자기주장을 어렵게 한다(Morokoff et al., 1997). 이는 사회 규범화된 성역할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행동을 안내하고 구속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남녀가 만나는 성적 상황에서는 더욱 성역할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Kiefer & Sanchez, 2007)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태도는 성적인 활동에서 남성에게는 성행위를 주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여성에게는 남성의 성적 주

도에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Muehlenhard & McCoy, 1991), 이는 전통적 성태도가 수동적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성적 자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Kiefer & Sanchez, 2007)를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태도를 지양하고, 성적 상황에서도 남자가 보다 성적으로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성적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의 성적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가 거절과 예방요인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것을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이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기에, 자율성에는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지 거절이라는 상대방 파트너의 요구에 대한 반응적인 성적 자기주장 개념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을 때 예방도 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하는 성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도 개념을 포함한 성적 자기주장의 개념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Hong (2002)도 그동안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금욕적인 절제 위주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왔으나, 청소년 성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주도성을 포함한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인인 주도, 거절, 예방을 모두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둘째,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거절 여부로 성적 자기주장을 판단하는 것이 자칫 편협한 이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자 한다. Impett와 Peplau (2003)는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는 사람의 동기에 따라 성관계 이후의 심리적 안녕에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밝혔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하였더라도 동기에 따라 다르다는 외국의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갖는다면,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에 관한 교육과 상담에서도 단지 원하지 않는 성적 응낙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

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연구이므로, 성적 다양성을 갖는 관계로까지 확대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에서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 없이, 설문에 응한 모든 학생들이 이성애자임을 암묵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본 연구의 표집의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중의 성적 자기주장 연구에서는 성적 정체성을 구별한 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의 정도를 확인하고,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는 이성교제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져 이성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헌신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성과의 성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확인하고 실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내면화된 성가치, 성태도 및 성인식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성적 존재로서 성적 자기를 확인하고 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적 자기주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성교제 시 데이트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훈련 즉, 성적 자기주장 훈련, 인권 감수성 훈련, 섹슈얼리티 감수성 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성을 다루는 성 교육자와 성 상담자들을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교육, 훈련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REFERENCES

- Chang, S. B., & Lee, M. K. (2003).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sexual auton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339-346.
- Chang, Y. K. (2002). *A study on date rape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i, M. H. (2005).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 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Galassi, M. D. (1977). *Assert yourself!: How to be your own pers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Han, N. C. (2010).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 114-138.
- Harlow, L. L., Quina, K., Morokoff, P. J., Rose, J. S., & Grimley, D. M. (1993). HIV risk in women: A multifaceted model.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 3-38.
- Hong, B. S. (2002). A study on sexual subjectivity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 79-117.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 87-100.
- Jang, S. J., Cha, D. H., & Lee, S. W. (1992). Woman and assertiveness training.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1, 1-40.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 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2, 731-738.
- Kiefer, A. K., & Sanchez, D. T. (2007).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 14, 269-290. <http://dx.doi.org/10.1111/j.1475-6811.2007.00154.x>
- Kim, A. Y., Kim, E. S., Kim, H. W., Wi, D. H., Lee, K. M., Jo, H., et al. (2011).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autonom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5, 103-116.
- Kim, E. M., Yoo, S. J., & Song, M. R. (2013).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20, 18-26.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1.18>
- Kim, J. I., Choi, S. J., & Sohn, Y. M. (2001). Effects of gender differences and sex-role attitudes on th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 1-22.
- Kim, K. W., Kang, K. H., & Jeong, G. H. (2012). Self 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 51-59.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51>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419-436.
- Lee, J. Y., & Lee, E. S.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 47-62.
- Lee, S. K. (2001).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 212-228.
- Morokoff, P. J., Quina, K., Harlow, L. L., Whitmire, L., Grimley, D. M., Gibson, P. R.,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90-804.
- Muehlenhard, C. L., & McCoy, M. L. (1991). Double standard/double bi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and women's communication about sex.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447-461.
- Oh, S. H., Kang, H. S., & Kim, Y. H. (2010).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 249-257.
- Rathus, S. A. (1973). A 30 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Sohn, A. R., & Chun, S. S. (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18, 73-100.
- Sohn, S.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nsent to unwanted sex: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oengju.
- Song, H. S. (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Yang, N. M., & Lee, J. Y. (2008). The effect of rape myth on the sexual assertiveness and control disposi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sian Women*, 47, 39-65.
- Yoo, M. S., Park, J. W., & You, M. A.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 14-22.
- Yoo, O. S., & Park, K. (2004).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16, 793-812.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exual assertiveness research was targeted at fema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unwanted sexual relations that mainly focus on ways to refuse and prevent.

■ **What this paper adds?**

Male college students reported lower score of sexual assertivenes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was explained by traditional sexual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elf-assertiveness. Expanding the concept of self-leading which includes self-assertion was important in this study.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will be used for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for the sexual-assertivenes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